

최대 장학금에 인재양성 탄력

임실군, 애향장학회 봉황인재학당 교육정책 기부문화 확산... 심민군수 동참

임실군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이 모아지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 운영을 중심으로 한 애향장학회 기부문화가 크게 확산, 지역 인재양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25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해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전달된 기탁금을 집계한 결과 1억5830만원의 장학금이 기부됐다.

이는 민선 6기가 들어선 해인 2014년 370만원(5건)에 비해 무려 4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학금 기부액과 기부 건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11건에 2430만원, 2016년 3950만원(19건), 2017년에는 4600만원(19건)으로 늘다가, 지난 해에는 1억 5830만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도시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외부유출을 막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개인 기부자들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인재들이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됐다.



임실군이 교육정책을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이 모아지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박상모 전 재경 임실군향우회장이 5000만원을 기탁했으며, 향후 5년간 1천만원씩 총 1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심민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도 무려 2700여만원을 선뜻 기탁해 단체 장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또한 출향 인사인 신덕전자(주) 1000만원(대표 박상철), (재)부산임실군향우회(회장 장철영) 및 (재)상남임실군향우회(회장 박완호)에서 각각 200만원, 전주개인택시 임실군향우회(회장 전철성)에서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향우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임실치즈협회가 2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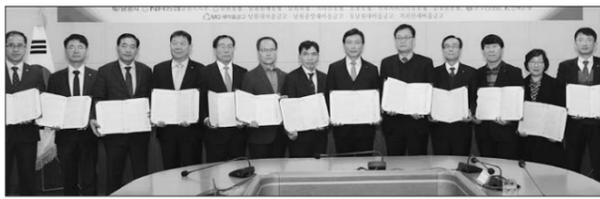
을 기부한 데 이어 임실군 산림조합과 애향운동본부,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 임실 이화회, 임실을 강진면 생활개선회, 성수면 이장협의회 등 관내 기관 사회단체들의 기부 행렬도 줄을 이었다.

심민 이사장은 "출향인사들과 지역민,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역대 가장 많은 장학금이 모아져서 기쁘다"며 "보내 주신 기탁금은 지역 인재육성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사용하고, 도시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더 많은 지역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남원시는 25일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들과 남원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내 농협은행남원시지부,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축협,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남원원예농협, 춘향골농협, 전북은행 남원지점, 남원새마을금고,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지리산새마을금고, 동남원새마을금고, 운누리신협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는 총 49개의 점포가 남원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남원시는 금융기관들과 남원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청 및 유관기관·단

체들의 상품권 사용 협조를 지속적인 홍보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고품질 과수생산 현장 기술보급 나서

임실군이 열매의 고장의 명성에 걸맞게 농가 현장 기술보급을 위해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명품 과수 생산을 위해 월동 병해충 밀도 저감을 위한 과수별 적기방제 지도를 실시한다.

봄철에는 과수의 생장과 함께 병해충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어린잎과 꽃눈이 발생할 때의 약제방제는 약해의 위험성이 크고, 벌과 나비 등의 수정곤충의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동계약제는 기계유 유제와 석유유황 합제, 석회보르도액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런 약제는 다양한 병해충의 밀도 감소에 효과가 있고, 특히 일반약제로 방제하기 어려운 알까지 방제가 가능하여 방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63-640-2792~5)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82개 군 지자체중 '주민평가' 전국 1위!

순창군, 주민평가 부문 지난해 7위 → 1위

순창군이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단위 가운데 주민평가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명품(名品) 지자체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16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 82개 군단위 대상의 올해 평가는 행정서비스(50%)와 재정역량(30%), 주민평가(15%), 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5%)등의 항목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주민평가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며 황주군수의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민평가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위로 끌어올린 결과로, 주민평가 항목인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역량 체감도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주군수는 자치단체장 역량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82개 군단위 중에서 5위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아 이 300만원, 둘째아 이 460만원, 셋째아 이 일천만원 등 현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 무료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등 육아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도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황주군수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정의로운 순창에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며 "주민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께서 만족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여서 더욱 좋다. 앞으로도 군민만을 바라보며 순창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전국 윗칠 목공예대전

오늘부터 4일간 작품접수

남원시는 제22회 남원시 전국 윗칠 목공예 대전의 출품 작품을 윗칠목공예부문과 같이부문으로 구분해 26일부터 3월 1일까지(4일간) 접수한다.

남원목공예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목공예대전은 공예작품을 발굴하고 공예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윗칠 목공예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단위의 대전이다.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원서를 내려 받아 제작한 작품과 함께 접수하면 되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남원시 서울사무소에서도 접수를 진행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총 42점이며 대상(1명, 상금 3,000만원), 금상(2명, 상금1,500만원), 은상(3명, 상금1,000만원), 동상(4명, 상금 500만/300만원), 장려상(8명, 상금100만원), 특선(2명, 상금75만원), 입선(22명, 상금25만원)으로 나뉜다. 입상작은 서울 KCDF갤러리, 원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남원 예루원, 전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순회전시할 예정이다. 상품성이 수상작은 컨설팅, 부스비 지원 등의 홍보지원을 받게 된다.

남원목공예협회 이정두 회장은 "윗칠 목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공예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환주 시장과 김진석 부위원장, 춘향제전위원회,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9회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제89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청 직원과 재전위원들이 전담하게 될 분야에 대한 기본사항 숙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춘향제는 전통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놀이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올 89회 춘향제는 주제를 '광한춘몽(廣寒春夢)'으로 정하고, 올해로 600년을 맞이한 광한루를 중심으로 요전 일원에서 연인·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꿈같은 봄 축제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유의 전통공연예술 이외에도 퓨전공연, 가곡공연, 길놀이 등을 확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축제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전통·퓨전·대중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완월정 주 무대는 대중을 포용할 수 있도록 대형무대로 조성해 춘향선발대회, 개막공연, 국악대전, 춘향패션쇼 등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고, 남원예촌에서는 포근한 한옥을 배경으로 소규모 무대를 조성하여 각종 퓨전공연을 마련한다.

광한루 정문 앞에서는 가족관광객을 위한 인형극, 버블쇼 등 어린이 공연장 조성과 차없는 거리(요전로)에는 워터와 소공연장을 설치해 버스킹, 서커스, 마임 등을 이어가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축제장으로 조성하며, 춘향제 대표행사중 하나인 길놀이를 2일로 확대하고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손쉽게 축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올 춘향제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축제가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추진

임실군이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며 임대료는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 하는 방식이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입주자에게는 주거비용 절감등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마을(문화)활동가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임실군청 주택관리팀(640-2284)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